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6권 제3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5, 12, Vol. 16, No. 3, 1-37.
doi <https://doi.org/10.12964/jsst.25007>

독립을 위한 상처: 부정적 모성성의 동물상징

Wounds of Independence:
Animal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윤 성 희
Sunghee Yoon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독립을 위한 상처: 부정적 모성성의 동물상징

Wounds of Independence: Animal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윤 성 희*

Sunghee Yo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화와 민담, 그리고 아동의 모래놀이 장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모성성의 동물상징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부정적 모성원형이 동물 혹은 인간-동물 혼합체로 표상되는 신화와 민담을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애착 손상과 불안,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상담에 의뢰된 여아 2명의 모래놀이 사례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은 단순한 공포의 표현이 아니라, 아동이 무의식적 모성 이미지와 관계 맺는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자료다. 둘째, 포식 동물을 '나쁜 것'으로 제거하려 하기보다, 아동이 그 상징과 안전하게 대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중요하다. 셋째, 모래놀이치료에서의 변화는 아동만이 아니라 부모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즉각적인 훈육과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의 감정을 먼저 반영해 주고, 일정한 한계를 차분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육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모래놀이에 나타난 동물상징을 단순한 공포나 병리의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를 직면하고 재구성하여 보다 안정된 자아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개성화 과정의 한 국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모성원형, 부정적 모성, 동물상징, 모래놀이치료, 개성화

* 주저자, 남서울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상담 · 심리치료전공 박사과정 / E-mail: j2htw@hanmail.net



Copyright ©2025,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imal symbolism associated with negative maternity as it appears in myths, folktales, and children's sandplay scenes from an analytical psychology perspective. Methodologically, the study selected myths and folktales in which the negative maternal archetype is represented as animals or human-animal hybrids and analyzed their contents, and it also reviewed two sandplay cases of girls referred for counseling due to attachment disruptions, anxiety, and difficulties with impulse contro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imals are not merely expressions of fear; rather, they constitute key material that reveals how a child relates to unconscious maternal imagery. Second, instead of attempting to eliminate predatory animals as "bad," it is important to help the child confront these symbols safely and to make meaning of them. Third, changes observed in sandplay therapy were closely connected not only to the child's change but also to changes in the parents. Specifically, mothers began to respond less through immediate discipline and control and more by first reflecting the child's emotions and calmly communicating consistent limi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imal symbolism in children's sandplay should be understood not simply as an expression of fear or pathology, but as a phase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in which the child faces and reconstructs a negative maternal complex and moves toward a more stable ego identity.

Key words : maternal archetype, negative motherhood, animal symbolism, sandplay therapy, individuation

I. 서론

Jung(1984/2002)은 모든 인간의 정신에는 집단무의식에 뿌리를 둔 원형이 깃들여 있으며, 이는 개인을 넘어 전체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형은 그 자체로 의식 세계에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원형에너지를 배열시키고 개인적 경험이나 문화, 종교, 인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상징에 투사된다(Jung, 1984/2002). Jung은 상징에 대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며 그 이미지가 떠오른 개인에게 강렬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무의식이 상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고 하였다(Jung, 1985/2024). 원형은 상징의 이미지 즉, 신화나 민담, 꿈, 모래놀이, 문학, 예술 등의 형태로 의식화된다(Jung, 1959). Jung이 발견한 원형에는 모성원형, 부성원형, 아니마/아니무스원형, 영웅원형, 어린이원형 등이 있다(Walker, 2013; 장미경, 2024).

모성원형은 이러한 원형들 가운데서도 자녀의 심리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형이다. Neumann(1973)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개인적 어머니가 존재하며 개인적 어머니가 보여주는 양육과 돌봄, 혹은 결핍과 통제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모성원형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장미경, 2024). 이때 모성의 이미지는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만 등장하지 않는다. 모성원형의 이미지가 개인의 어머니와 멀어질수록 더 많은 원형적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 상징으로 나타난 어머니보다 동물이나 여신,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머니가 집단무의식의 깊은 차원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장미경, 2024).

Neumann(1955/2009)은 영웅 신화에 등장하는 다수의 괴물은 여성의 얼굴과 동물의 몸이 결합된 존재로 묘사된다고 하였으며, 무서운 동물이나 괴물로 등장하는 모성과 마주하며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 과정에서 분리와 통합, 죽음과 재생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이야기는 모성원형이 개성화의 과정에 부여하는 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Neumann, 1955/2009; von Franz, 1997; 박정희, 2017).

동물은 본능적이고 인간 이하의 충동성을 지닌 집단무의식의 법칙을 이행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동물의 본능적 행동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고유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Kalff, 2012/2021). 자연 생태계에서 곰과 늑대, 호랑이, 악어, 캥거루, 햄스터 등 다양한 동물들은 새끼가 성체로 자랄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며, 성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단호하게 밀쳐낸다. 동시에 급격한 환경 변화나 질병 등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는 새끼를 죽이거나 버리는 극단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탄생과 양육, 보호의 모성은 죽음과 파괴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동물의 본능적 섭리 안에는 헌신과 파괴가 공존한다.

흔히 신화나 민담, 민속신앙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이부영, 1978/2021), 이는 자아의식보다 무의식의 직관능력이 먼저 아는 것을 상

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Jung, 1961; 이부영, 1978/2021). Jung(1970)은 동물상징에 대해 “집승이 등장하는 상징 체계는 본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과정의 징후”이며, 항상 무의식에 속하거나 억압된 본능을 나타내는 무의식적 리비도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물로 나타나는 부정적 모성이미지에 대해 ‘끔찍한 어머니’라고도 표현하였다(de Vries & de Vries, 1974/2024). 이처럼 동물 형상으로 드러난 리비도는 억압되거나 미성숙한 상태의 ‘동물적 충동성’을 상징하며, 특히 여성적·모성적 이미지와 위험한 방식으로 결합할 때 공포와 매혹이 뒤섞인 부정적 모성의 상징으로 경험될 수 있다(Jung, 1985/2006). Jung(1959)은 부정적 모성을 경험한 아동이 어머니를 무서운 동물이나 요괴, 마귀, 마녀로 상징화하고 신경증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모성이 창조적인 방향이 아닌 파괴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때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가 형성되며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이부영, 1978/2021; 박행자, 2012). 이때 아동에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회피 본능,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강한 대상에게 맞추려는 복종 본능, 동시에 억압하는 대상에게 맞서고 싶은 공격적 본능이 뒤엉킨 채 의식과 무의식의 불균형이 나타난다(이부영, 1999). 이러한 본능들이 조율되지 못하면,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 놓인 채 강한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하고, 겉으로는 규칙과 권위에 과도하게 순응하는 성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장미경, 2024).

von Franz(1997)는 꿈이나 민담 속에서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 자아가 억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무의식의 한 측면을 상징한다고 하였으며 인간이 의식적으로 통합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Gillotti(2002)는 꿈이나 모래놀이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무의식이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 메시지이며, 개인이 인식하고 통합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측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물상징은 특히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동의 모래상자에는 식물과 동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장면을 채우는 배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초기 애착 경험과 정서 발달, 자아분화 과정을 압축해 담고 있는 핵심 상징으로 기능한다(장미경, 2023). 인간의 자아 발달에서 자아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를 Kallf(2012/2021)는 식물-동물 단계로, Neumann(1955/2009)은 남근적 대지 단계로 설명하면서, 이 시기의 심상들이 이후 자아의식의 성장을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장미경, 2023). 생후 1-2세 무렵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이후 전 생애에 걸쳐 관계 양식을 규정하는 기초가 되며(Beebe & Lachmann, 1994; Shi, et. al., 2012), 이 시기의 경험은 언어로 기억되기보다 심상과 정서, 몸의 기억 및 상징적 이미지에 새겨진다. 따라서 모래놀이치료에서 동물상징을 탐구하는 것은 초기 애착 경험과 관계의 유형에 대한 아동의 무의식적 기억과 정서를 살펴보는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신화와 민담, 그리고 아동의 모래놀이 사례에서 동

물이 부정적 모성상징으로 표현되는 상징성과 담긴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신화와 민담에서 나타난 부정적 모성의 동물상징

신화와 민담 속 동물은 대개 어머니 혹은 보호자의 얼굴을 하고 접근하여 유혹·통제하고, 위협·포식·추격을 통해 주인공을 원초적 자궁으로 되돌리려는 부정적 모성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왜곡된 모성원형이 동물적 본능과 결합할 때, 잡아먹는 모성의 성격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Neumann, 1955/2009; 장영란, 2015). 주인공은 이러한 존재와의 대면을 통해 죽음의 위기를 겪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경우 모성의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분리·자립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Jung, 1985/2006).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와 지하세계의 신 타르타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에키드나(상반신은 미녀, 하반신은 얼룩덜룩한 무늬를 지닌 뱀의 형상)는 괴물의 어머니로서 파괴적인 후손을 배출한다(김인아, 김수미, 2025).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에키드나(de Vries & de Vries, 1974/2024)는 자신의 아들 오르투루스(머리가 두 개인 괴물 견)와 근친상간하여 스피르크스를 낳았다. Jung(1985/2006)은 스피르크스를 아름다운 여성의 상체와 무서운 사자의 하체를 가진 반인반수 동물 형상을 한 유혹적이면서 파괴적인 존재로서 외면적으로 ‘무서운’ 또는 ‘잡아먹는’ 어머니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스피르크스는 테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었고,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지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과 공포로 지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스피르크스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개인 내면의 세계로 향하는 길목에서 맞닥뜨린 모성 원형의 어두운 측면이다. 사랑과 보살핌의 보호 아래 심리적인 압박과 통제로 자녀의 성장과 자립을 방해하는 부정적 모성의 속성을 상징한다. 스피르크스를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것은 원형적 에너지를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의존적 자아와 통제적인 모성의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다(Cambell, 1949/2018). 의존 상태에 머무르며 변화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주체성은 확립되고, 성장의 문턱에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Self)를 향해 나아가는 개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Jung(1985/2006)이 이야기한 개성화 과정의 본질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즉 결합하는 것이다.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작성한 『오디세이아』에서 여성의 얼

굴과 목소리, 독수리의 몸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묘사된 사이렌이 등장한다(김연수, 2020). 그러나 중세 시대 후반 이후부터 미술작품에 표현된 사이렌은 여성의 상체를 강조하고 물고기의 꼬리가 합쳐진 인어의 모습으로 변형되지만, 인간적인 매혹과 동물적인 포식성이 결합된 혼합체라는 점은 유지된다.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의 이야기는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고향 이타카로 항해하는 중에 섬이나 해변에 살며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한 뒤 그들의 배를 난파시켜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이렌을 만나 유혹을 견뎌야 하는 고비를 겪는다. 아이아이에라는 섬에서 만난 마녀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몸을 묶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한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노랫소리는 듣지만,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되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김연수, 2020).

사이렌은 단순히 매혹적인 여성의 모습만이 아니라, 동물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인 부정적인 모성원형을 드러낸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사이렌은 독수리의 몸과 발톱을 지닌 괴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새끼를 잡아채 죽이는 맹금류의 본능을 반영한다. 이러한 측면은 모성원형의 파괴적 성격, 즉 자녀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집어삼키고 억압하는 부정적 모성의 상징이다(Neumann, 1955/2009). 사이렌의 새와 같은 육체, 혹은 중세 시대 이후 인어로 변형된 동물적 형상은 인간적인 매혹과 동물적인 포식성이 결합된 혼합체로, 자녀를 무의식의 심연 속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준다(de Vries & de Vries, 1974/2024). 사이렌의 날개와 발톱, 물고기 꼬리 등은 인간을 넘어서는 동물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힘을 강조하며, 자녀를 개별적 존재로 독립시키기보다 원초적 자궁으로 되돌려 삼켜버리는 모성의 파괴적 충동을 상징한다. 또한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성인 아니마의 파괴적인 측면을 상징하며, 치명적인 아름다움의 유혹을 통해 자아를 파괴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노랫소리는 파멸로 이끄는 환상이며 현실을 회피하고 무의식적인 욕망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고 무너지게 한다. 영웅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유혹에 맞서 의식적으로 한 절제의 행동은 피할 수 없는 유혹적인 상황, 즉 부정적 모성의 집어삼키려는 힘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무의식의 파괴적인 매혹을 통과하는 영웅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Jung, 1984/2002).

Jung(1985/2006)은 자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와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파괴적 여성 원형의 사이렌은 온전한 자기(Self)로 향하는 문 앞에 서서 유혹과 쾌락의 시험에 들게 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하는 과정을 시련으로 만들어 내는 존재인 것이다. 쾌락과 유혹에 빠져 시련을 회피한다면 자아는 퇴행하고 자기실현의 가능성은 없어진다.

독일의 동화작가 그림(Grimm) 형제가 쓴 『빨간모자와 늑대』는 소녀가 어머니의 심부름

으로 아픈 할머니에게 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Brocklehurst & Doherty, 2018). 숲속을 걷는 소녀를 발견한 늑대는 거짓말로 소녀를 속여 숲속의 다른 길로 가게 한 뒤,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해 할머니를 잡아먹는다. 늑대는 할머니로 위장해 뒤늦게 도착한 소녀를 속여 잡아먹는다. 이후 늑대를 발견한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갈라 두 사람을 구한다는 고전 동화이다(Brocklehurst & Doherty, 2018).

소녀가 쓴 빨간 모자는 여성의 성적 성숙과 자의식이 생기는 심리적 전환기를 상징한다. 미성숙한 자아는 무의식의 위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자아가 억압한 욕망, 성적 본능, 그림자로 상징되는 늑대를 만나게 된다. von Franz(1995)는 민담에 등장하는 늑대를 자아의 발달을 막는 무의식의 파괴적 에너지로 보았다. 늑대로 표현된 위협적이고 유혹적인 본능과 대면하는 숲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피난처, 신비한 공간이며(de Vries & de Vries, 1974/2024), 자아가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 규범, 보호로부터 벗어나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von Franz, 2017/2020). 할머니는 따뜻하고 보호하는 모성의 긍정적 측면을 상징하지만,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위장된 할머니는 파괴적이고 잡아먹는 부정적 측면의 모성으로 바뀌게 된다. 늑대는 민담 속에서 단순히 공포를 유발하는 동물이 아니라, 모성의 어두운 그림자 측면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난다(von Franz, 1995). Jung(1959)에 따르면 부정적 모성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억압하고 무력하게 만들며 심리적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하였다. 늑대가 주인공을 속이고 잡아먹으려는 모습은 이러한 파괴적 모성의 포식성을 반영한다. 즉, 늑대는 자녀를 자립시키지 않고 자기 안에 가두어 두려는 집어삼키는 모성의 상징이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방해하며, 무의식 속에서 억압과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숲은 마음의 영역이며 미지의 위협이 지배하는 곳이고(Cooper, 1978/1994), 늑대는 그 안에서 자아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부정적 모성의 구체화 된 이미지로 기능한다. 늑대를 물리치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주인공의 행동은 자아가 모성의 억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Jung, 1984/2002).

이후에 등장하는 사냥꾼에 의해 빨간 모자를 쓴 소녀와 할머니는 살아난다. 사냥꾼은 무의식의 유혹과 그림자에 의해 미성숙한 자아가 휘말릴 때 이를 구하고자 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von Franz(1995)는 “민담에서 부정적 모성은 단순히 악한 존재가 아니라, 자아를 시험하고 독립을 유도하는 무의식의 상징임을 보여준다.”라고 하였다. 이 민담의 상징적 의미는 그림자와 마주한 자아가 성장해 나가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민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오누이의 어머니가 시장에 간다며 집을 비우면서 시작된다(양혜원, 2016). 호랑이는 산에서 만난 어머니를 잡아먹고 오누이의 어머니로 가장하여 집에 남은 오누이에게 접근한다. 오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손을 보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도망을 가지만 호랑이는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쫓아간다.

오누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살려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고 곧이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올라간 오누이는 각각 해와 달이 되었고 오누이를 따라 동아줄을 타고 올라간 호랑이는 떨어져 죽는다(양혜원, 2016).

이 민담에서 호랑이는 어머니의 탈을 쓴 존재로 등장한다. 이는 친근함과 보호라는 외형 속에 자녀를 위협하고 삼키려는 파괴적인 부정적 모성을 내포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인 척하며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점에서 자녀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부정적 모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는 자녀의 독립을 돕는 존재이지 항상 보호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오누이는 집어삼키려는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탈출한다.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는 나쁜 엄마, 즉 부정적 모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Neumann, 1955/2009). 자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원형적인 힘을 인식하고 의식이 무의식의 파괴적인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자립해야 하는 것이다. 오누이는 호랑이로부터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 오빠는 해로, 여동생은 달이 되었다. 해는 빛이며 남성, 젊음, 의식과 이성의 상징이고 달은 어둠 속의 빛이며 여성, 무의식의 영역을 밝혀주는 감정과 직관의 상징이다(de Vries & de Vries, 1974/2024).

여기에 소개된 신화와 민담은 어머니·보호자·유혹자로 등장하는 동물, 집어삼킴·생명의 위협, 통제와 의존 상태에 묶어 두려는 힘, 탈출·도피·반항·대결, 상승·변형, 보호자원 및 조력자 등장이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나타났다. 즉, 신화와 민담 속 부정적 모성의 동물상징은 자아를 파괴하는 단순한 악이 아니라, 자아가 성장과 분리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심리적 시험과 전환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아동의 모래놀이 사례에서 나타난 동물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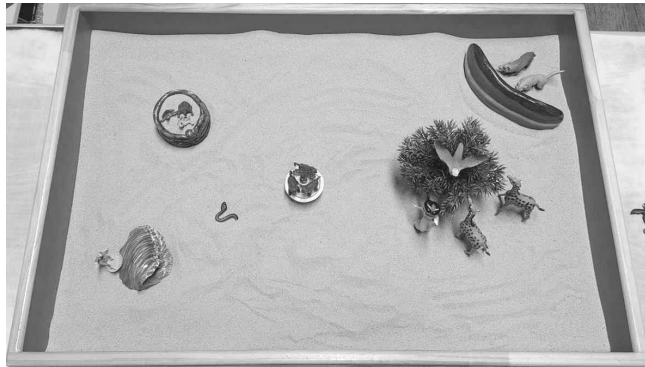
1) 사례 1: 만 11세 아동의 모래상자

만 11세 여아는 과잉보호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와 매우 허용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비일관적인 양육을 경험하였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표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담임교사의 권유로 상담에 의뢰되었다. 어머니는 불안수준이 높고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아동에게 매우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아동의 위축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는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동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였으며 엄마를 “좋아하지만 무섭기도 하다”라고 표현하는 등 양가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아동은 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숲이 있고 평화로운 마을인데 늑대가 여기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힘... 무지개가 늑대를 막았더니 다시 안전한 동네가 되었어요. 늑대는 가려졌고 마을은 다시 안전해져서 우물 안에서 거북이랑 개구리가 태어났어요.”



[모래상자 1]

아동이 만든 모래장면은 안전한 마을과 혼돈과 미지의 영역인 숲(Cooper, 1978/1994),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자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화로운 마을은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긍정적 모성공간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를 위협하는 늑대의 존재는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을 갖는 부정적 모성의 측면을 드러낸다. 이는 Jung(1959)이 말한 자녀를 분리·개별화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안에 흡수하려는 집어삼키는 어머니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으며, 아동이 실제로 경험한 통제적 어머니의 측면을 반영한다. Jung(1985/2006)에 따르면 부정적 모성의 동물상징은 뱀, 악어, 늑대, 거미 등 집어삼킴과 포식 본능을 지닌 동물들로 자주 나타나며, 이러한 상징은 인류의 집단무의식에 자리한 부정적 모성상을 드러낸다.

모래상자 속 늑대는 마을의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어슬렁거린다. 늑대는 자신의 새끼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는 동물로써 모성적 본능과 관련 있는데, 민담에서 모성적 본능은 때로는 파괴적인 잡아먹는 모성으로도 나타난다(von Franz, 1972/2017). 이는 『빨간모자와 늑대』에서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 할머니로 위장한 늑대와 같이 자녀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 아래에 가두려는 부정적 모성의 본능을 보여준다(von Franz, 1995). 모래장면 속 늑대가 사냥을 위해 마을의 동물들을 위협하는 모습은 아동의 내면에서 억압적인 모성의 힘이 자아의 성장과 자율성을 방해하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한다.

무지개는 신비로운 에너지로 늑대를 가려 마을을 보호하려는 에너지로 등장한다. 그러나 늑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가려졌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마을을 안전하게 하는 보호막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위협을 가리고 억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부정적 모

성이 여전히 깊은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으며 언젠든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장면은 겉보기에는 평화와 회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억압하고 잠시 진정시킨 상태를 보여준다.

이후 우물 속의 거북이와 개구리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무지개가 지켜낸 안전함 속에서 태어났다. 거북이는 천지창조의 시작, 만물의 기반, 다산, 재생을 상징하며(Cooper, 1978/1994), 개구리는 수생동물이었다가 반만 물에 사는 양서류로 변하는 존재로서 변형과 전환의 가능성을 상징한다(von Franz, 1972/2017). 또한 민담에서 등장하는 개구리는 여성의 출산을 돕고 생식력을 가져다주는 모성적 동물로 무의식의 충동을 의식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 상징이 있다(von Franz, 1972/2017). 이러한 상징을 고려하면, 우물 안 거북이와 개구리는 아동 내면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아, 변형과 자율성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리한 공간이 '우물 안'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우물은 깊은 무의식과 동시에 제한된 세계를 상징한다. 거북이와 개구리가 안전한 공간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우물이라는 닫힌 구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율적 자아로 성장할 잠재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모성의 영향과 가족체계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자아가 싹트고 있으나 아직 세상으로 나가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읽을 수 있다.

모래상자의 왼쪽 아래에는 파도와 함께 뱀이 배치되어 있으며, 뱀의 머리는 우물 속 거북이와 개구리를 향하고 있다. 파도는 거대한 무의식의 에너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서의 출렁임을 상징하고, 뱀은 본능적 충동과 더불어 성장과 분화를 가로막는 부정적 모성원형의 상징으로 자주 해석된다(von Franz, 1972/2017). 이 장면에서 뱀은 우물 속 새 생명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막 태어난 자아의 가능성이 다시금 무의식적 모성의 영향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늑대와 뱀은 아동이 직면한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의 그림자적 측면을 상징한다. 늑대가 마을의 동물들을 위협하고, 뱀이 우물 속 거북이와 개구리를 향해 다가가는 장면은, 새롭게 태어난 자아의 가능성이 언젠든 '집어삼키는' 모성에 의해 억압되거나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거북이와 개구리는 변형과 재생, 자율성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상징으로, 무지개가 지켜낸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안전 기반 안에서 성장하려는 힘을 드러낸다. 거북이·개구리(성장과 재생의 가능성)와 늑대·뱀(파괴적 모성) 사이의 대립은 아동 내면의 긴장과 갈등 구조를 선명하게 시각화한다.

Kast(1994)는 자아 콤플렉스가 긍정적 모성 콤플렉스로부터 충분히 분리·독립되지 못할 경우, 언젠든 불안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불안은 발달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공생적 관계에서 개성화로, 의존에서 자율성으로, 단순한 순응에서 자기 책임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융합에서 더 분화된 자기 고유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Kast,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은 '엄

마가 무섭지만,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Winnicott, 1965; 장미경, 2018). 이는 실제로 아동이 “엄마가 좋지만,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한 특징과도 맞닿아 있다.

이 모래놀이 장면은 아동이 부정적 모성의 영향 속에서 여전히 불안을 경험하면서도, 부분적인 회복과 새로운 자아의 탄생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무지개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거북이와 개구리는 아직 우물 속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늑대와 뱀으로 상징된 부정적 모성을 직면하고, 그 에너지를 의식 속에서 재구성·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시사한다. Jung(1985/2006)의 개성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래상자는 아동이 파괴적 모성 콤플렉스를 마주하고, 동시에 새로운 자아의 씨앗을 지키려는 내적 여정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회기 이후 아동의 일상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먼저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이전보다 불안이 감소하고, 담임교사가 지적인 ‘친구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완화되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 발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친구가 부탁을 해도 하기 싫을 때는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등 자기표현과 경계 설정이 조금씩 가능해졌다.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울거나 회피하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그건 싫다”고 말로 표현하는 모습이 보고되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과제를 확인하거나 생활습관을 통제하려 할 때, 아동은 이전처럼 얼어붙거나 순응하기만 하기보다 “지금은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자율성을 요구하는 시도를 보였다. 초기에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증가하기도 했으나, 병행된 부모상담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의 불안과 통제 욕구를 자각하고, 아동의 선택을 잠시 지켜보는 연습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점차 완화되었다. 그 결과 아동은 “엄마가 전보다 덜 혼내고, 내가 말하면 조금은 들어준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 또한 “아이 얼굴이 전보다 편안해 보이고, 집에서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피드백하였다.

종합하면, 이 회기는 모래놀이 장면 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을 견디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자기 고유성을 주장해 보려는 초기 시도를 가능하게 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불안이 단지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공생적 관계에서 개성화로 나아가게 하는 발달적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적 예라 할 수 있다(Kast, 1994).

2) 사례 2: 만 13세 아동의 모래상자

만 13세의 여아는 학교 수업 중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좋지 않다는 주호소로 상담에 의뢰되었다. 어머니의 보고로는 아동은 강한 체벌이 있어야 말을 잘 듣는다거나 자신이 세운 규칙에 어긋나는 상황과 행동은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아동은 한참을 울고 떼를 쓴다고 했다.

아동은 모래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곳은 사파리인데 가족단위로 움직여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호랑이는 사냥할 준비하고 있고, 코끼리는 물 먹고, 기린은 풀 먹고, 곰은 배고파서 화가 났고요. 그래서 배고파서 화나서 누군가 가져다 준거예요. 음... 여기 사파리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호랑이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잡아먹히진 않을 것 같아요.”



[모래상자 2]

아동이 만든 이 모래놀이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사파리 속 동물들의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동이 경험하는 모성과의 심리적 갈등과 내면의 긴장을 드러낸다.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왼쪽 상단의 호랑이 무리는 강력한 힘과 보호를 의미하는 동시에 공격성과 집어삼키는 파괴성, 억압의 측면을 함께 지닌다(de Vries & de Vries, 1974/2024). 특히 무리 속 새끼 호랑이의 존재는 아동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사냥을 준비하는 것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어머니 자신의 영역 안에 가둬두려는 모성의 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 민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한 호랑이가 아이들을 자기 영역 안에 묶어 두고 결국 잡아먹으려 하는 장면과 유사한 ‘위장된 모성-포식’의 패턴을 반복한다. 이처럼 아동의 무의식에서 어머니는 사랑과 보호의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억압하는 양가적 존재로 경험된다(Jung, 1984/2002).

모성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모래상자 오른쪽 아래(Ammann, 2001/2009)에는 배고픔으로 인해 분노에 찬 곰이 등장하며, 사파리 직원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 배고픔과 분노는 긍정적 양육의 결핍과 거부를 반영하며, 곰은 아동의 결핍된 자아 또는 내면의 공격 본능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von Franz, 1972/2017). 부모로부터 직접 충족되지 못한 모성적 욕구를 사파리 직원이라는 외부의 대체 대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드러나며, 이는 아동의 자아가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어 스스로 자원을 획득하기보다 외부적 지지에 의존하여 결핍을 메우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신화와 민담에서 영웅이 스승·조력자(예: 오디세우스를 돕는 키르케, 빨간모자를 구해내는 사냥꾼)를 통해 잡아먹는 모성의 위협을 통과했던 것처럼, 이 장면의 사파리 직원 역시 아동이 부정적 모성의 위협 속에서도 생존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자’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랑이가 곰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려 하지만 끝내 포식에 이르지 못하는 설정은, 아동 내면에서 부정적 모성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도 안정감에만 머물지 않고 이에 저항하며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 욕구가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모래놀이 치료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동물상징의 변화가 더욱 분명해진다. 초기 회기의 모래상자에서는 호랑이·늑대 등 포식 동물이 단독으로 등장하여 다른 존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인간이나 조력자 상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 장면이 만들어진 이후 회기에서는 위협과 포식이 중심이었던 구성이 점차 공존·조절·휴식의 이미지가 포함된 장면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위기-탈출-상승-재생’이라는 구조를 통해 해와 달로 거듭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혹은 늑대를 극복한 뒤 새로운 관계 세계로 나아가는 『빨간모자와 늑대』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잡아먹는 모성의 위협이 자아의 분리와 성장, 재구성을 촉발하는 시험으로 기능함을 임상 장면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이 모래놀이를 통해 억압적 모성과의 관계를 단순히 반복·재현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성과 의존 욕구를 동시에 품고 있는 모성 이미지를 보다 유연하게 다루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 모래놀이 장면은 아동이 집어삼키는 모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럼에도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자율성과 돌봄의 균형을 모색하는 내적 과정을 상징한다(Kast, 1994). 아동의 일상에서도 무엇보다 충동적인 행동이 완화되고 조절되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학교에서 사소한 자극에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친구의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내던 모습은 점차 감소하였다. 담임교사는 아동이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몸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상황을 살펴보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내면에서 곰과 호랑이의 공격성이 그대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사고를 매개로 한 자기조절 기능

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도 분노가 치밀 때 물건을 던지거나 울며 떼 쓰던 행동이 감소하고,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 부모상담을 통해 어머니가 즉각적인 훈육과 통제 대신 아동의 감정을 먼저 반영해 주고, 일정한 한계를 차분히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아동 역시 어머니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반발하기보다 타협하고 조율하는 방식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래상자 속 동물상징이 '무조건적인 포식과 위협'에서 '먹이와 도움을 매개로 공존을 시도하는 장면'으로 이동한 것과 맞물려, 아동의 충동성이 단순히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절 가능하고 다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Ⅲ. 결론

이상으로 신화와 민담, 사례를 통해 부정적 모성이 나타난 동물상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정적인 모성의 상징성은 인간 내면에서 발생한 이미지들로 표상되며, 위협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동물이 인간의 한 부분으로 결합된 형상으로 신화, 벽화, 문학, 예술 등에서 모든 민족, 시대, 국가 어디서든 등장한다(Neumann, 1955/2009).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상징을 지니며, 인간의 무의식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민족의 집단무의식 속에서 보편적 원형을 반영한다. von Franz(1997)는 민담에 대해 집단무의식의 상징으로서 자아의 심리적 성장 과정과 원형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마녀, 계모, 괴물 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모성은 자아의 독립을 가로막고 내적 장애물로써 개성화를 방해하는 그림자로 작용한다. Neumann(1955/2009) 역시 어머니의 불안과 과도한 통제가 아이의 자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 등장한 신화와 민담 그리고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의 사례에서는 늑대, 호랑이, 뱀, 곰 등 포식성과 위협성을 지닌 동물들이 집어삼킴, 생명의 위협, 의존상태에 묶어두려는 힘 등의 부정적 모성상징으로써 나타났다.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경험하며 성장한 사례 1의 아동은 자신의 그림자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내면의 힘을 경험하며, 친구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변화를 보였다. 사례 2의 아동은 치료자가 만든 자유롭고 보호적인 공간에서 모래놀이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경험을 하였다(Kalff, 1980). 이러한 변화는 포식 동물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에서 조절 가능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들의 변화와 함께 부모님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치료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었다.

놀이치료의 변화 과정을 종합해 보면, 동물상징은 단일 회기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잡아먹는 모성 → 거리두기·차단 → 보호자원 등장 → 공존과 재생의 흐름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화·민담에서 나타난 ‘잡아먹는 모성-분리-재생’의 상징 구조와도 상응한다. 민담 속 주인공이 무서운 어머니-동물을 피해 탈출하거나 맞서 싸운 뒤, 새로운 자리(해·달, 새로운 마을, 새로운 관계)를 얻는 서사처럼, 모래놀이에서도 포식 동물과의 대면이 자아의 분리와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자기상을 향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모성 원형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현실의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장미경, 2024).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손상된 아동이 모래놀이 치료를 경험할 때 치료 초기에는 부정적인 모성이 드러나지만, 치료 후반에는 긍정적인 모성으로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죽음, 재생, 통합의 과정이 일어난다(박정희, 2017). 사례의 아동들은 모래상자에서 부정적인 모성상징으로서 동물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뒤, 점차 보호 자원, 도움을 주는 인물, 새 생명의 탄생 이미지를 등장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 모성 경험을 단순히 “나쁜 양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분리와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겪는 심리적 긴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Neumann, 1955/2009).

어머니가 자신의 불안과 통제를 성찰하지 못할수록, 자녀는 모래상자에서 포식 동물에게 쫓기거나 잡아먹히는 장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von Franz, 1997). 반대로, 치료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방식을 돌아보고,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려는 방향으로 변해 갈 때, 자녀의 모래장면에도 공존과 돌봄, 재생의 이미지가 증가한다(Jung, 1959). 즉, 부정적 모성 상징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보호·경계·조절의 힘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부모-자녀 관계 회복의 중요한 지점임을 보여준다.

모래놀이치료에서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동물은 단순한 공포의 표현이 아니라, 아동이 무의식적 모성 이미지와 관계 맺는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자료라는 점이다. 둘째, 포식 동물을 ‘나쁜 것’으로 제거하려 하기보다, 아동이 그 상징과 안전하게 대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늑대에게 이름을 붙이거나, 먹이를 주거나, 거리를 조절하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파괴적 모성상징을 조절 가능한 대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모래놀이치료에서의 변화는 아동만이 아니라 부모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사례들에서 보듯, 아동이 모래상자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두려움과 결핍을 치료자가 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부모가 자신의 통제적·회피적 양육 패턴을 성찰하기 시작할 때, 부모-자녀 관계는 보다 상호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강한 처벌을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가 아동의 모래놀이와 부모상담을 통해 아동의 고통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양육 방식을 조정하고 사과·공감·경청을 시도하게 된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는 모래놀이치료가 단지 아동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아니라, 부모가 긍정적 모성원형의 일부를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가족 개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 발달과 성숙을 위해, 무서운 어머니로 나타난 상징과 맞서 싸우고 이를 이겨내는 상징적 놀이(Neumann, 1973)는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개성화의 한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Jung, 1959). 무서운 어머니에서 좋은 어머니로의 재탄생에는 상징적 죽음과 재생의 통과의례가 필요하며(Sibylle, 2003/2012), 모래놀이치료는 이러한 내적 의례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Kalff, 1966; Mitchell & Friedman, 1994).

본 연구는 신화·민담의 부정적 모성상징과 모래상자에서 나타난 동물상징이 ‘잡아먹는 모성-분리-재생’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패턴을 공유함을 보여주었다. 임상적으로 이는 아동의 상징 놀이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적 모성 이미지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경계를 확립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료자는 아동의 모래상자 속 동물상징을 회피의 대상이 아닌 해석과 통합의 중요한 단서로 존중해야 하며, 부모와의 협력적 작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Jung(1985/2006)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 임상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연수 (2020). 카프카의 서사전략과 사이렌 신화변용 - 유혹하는 사이렌? 독일언어문학, 89, 165-195.
- 김인아, 김수미 (2025). 공포와 매혹의 투사로서 괴물의 유형과 상징성. 상징과모래놀이치료, 16(1), 125-173.
- 박정희 (2017). A Study on the Mother Symbols in Folktales and Mythologies in Korean and Greek Folktales & Mythologies. 인문과학연구, 52, 137-163.
- 박행자 (2012). 아동의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카오스, 죽음, 재탄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혜원 (2016).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노란돼지.
- 이부영 (1999). 「정신신경증」의 심리역동 - 학과간 비교 - / C. G. Jung의 ‘신경증론 - 고통의 의미와의 관련에서 -. 한국분석심리학회, 14(2), 55-73.
- 이부영 (2021). 제3판 분석심리학 - C. G.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원서출판 1978)
- 장미경 (2018). 놀이치료. 창지사.

- 장미경 (2023). 모래놀이치료에서 식물 & 동물 상징성.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온라인세미나 발표자료.
- 장미경 (2024).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2판. 학지사.
- 장영란 (2015). 원형적 여성성과 위대한 어머니의 양가성의 상징과 이미지 - 노이만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44, 227-254.
- Ammann, R. (2009). *융 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원서출판 2001)
- Beebe, B., & Lachman, F. M. (1994). Representation and Internalization in Infancy: Three Principles of Salience. *Psychoanalytic Psychology*, 11(2), 127-165.
- Brocklehurst, R. & Doherty, G. (2018). 한 권으로 읽는 어스본 클래식 그림 형제 동화집 (양혜진 역). 어스본코리아.
- Campbell, J. (2018).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역). 민음사. (원서출판 1949)
- Cooper, J. C. (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글방. (원서출판 1974)
- de Vries & Arthur de Vries. (2024). 인간본성과 삶의 이해를 위한 상징과 이미지 사전 (장미경, 권미라, 김소명, 정현숙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1974)
- Jung, C. G. (2002).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숲. (원서출판 1984)
- Jung, C. G. (2006). 영웅과 어머니 원형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숲. (원서출판 1985)
- Jung, C. G. (2024).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숲. (원서출판 1985)
- Kalff, D. (2021). 도라칼프의 모래놀이, 융심리학적 치유법 (이보섭 역). 학지사. (원서출판 2012)
- Neumann, E. (2009). 위대한 어머니 여신: 인류의 무의식적 심층 속에서 여성의 원형을 찾는 위대한 탐구 (박선화 역). 살림. (원서출판 1955)
- Sibylle Birkhäuser-Oeri (2012). 민담의 모성상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원서출판 2003)
- von Franz, M. L. (2017). 영원한 소년과 창조성 (홍숙기 역). 한국융연구원. (원서출판 1972)
- von Franz, M. L. (2020). 민담 속의 여성성 (박영선 역). 한국융연구원. (원서출판 1972)
- Gillotti, S. (2002). The turtle: Symbol of ancient wisdom and new life.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1(1), 51-61.
- Jung, C. G. (1959).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9.
- Jung, C. G. (1961). *Zu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m Märchen*, in *Symbolik des Geistes*, Rascher,
- Kalff, D. (1966). *Symbolism and child analysis*. Unpublished transcription of seminar at Footlighters' Child Guidance Clinic. Hollywood Presbyterian Hospital.
- Kalff, D. (1980).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Temenos Press.

- Kast, V. (1994). *Vater - Töchter - Mutter-Söhne: Wege zur eigenen Identität aus Vater - und Mutterkomplexen*. Kreuz Verlag GmbH & Co.
- Mitchell, R. R. & Friedman, H. S. (1994). *Sandplay: Past, present and future*. Routledge.
-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Publication.
- Shi, Z., Bureau, J. F., & Easterbrooks, M. A., & Zhao, X., & Lyons-Ruth. (2012). Childhood maltreatment and prospectively observed quality of early care as predictor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3(1), 55-69.
- von Franz, M. L. (1995).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Shambhala Publications.
- von Franz, M. L. (1997). *Archetypal Pattern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 Walker, S. (2013). *Jung and the Jungian myth*. Routledge.
- Winnicott, D. W. (1965). *The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Hogarth Press.

투고일: 2025. 10. 15
수정일: 2025. 12. 15
게재확정일: 2025. 12. 18

Wounds of Independence: Animal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Sunghee Yoo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imal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as they appear in myths, folktales, and children's sandpic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As its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selected myths and folktales in which the negative mother archetype is represented in the form of animals or human-animal hybrids, and closely examines Sandplay cases of two girls referred for counseling due to attachment disruptions, anxiety, and difficulties in impulse contro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imals are not merely representations of fear, but constitute key symbolic material through which children reveal how they relate to unconscious maternal images. Second, rather than attempting to eliminate predatory animals because they are "bad," it is essential to help the child safely confront these symbols and assign meaning to them. Third, change within Sandplay therapy was found to be closely linked not only to the child but also to changes in the parents. Specifically, mothers began to respond less through immediate discipline and control and more by first reflecting the child's emotions and calmly communicating consistent limi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imal symbols in children's Sandplay should not be understood simply as representations of fear or pathology, but rather as a phas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through which children confront and reorganize the negative mother complex and achieve a more stable ego identity.

Key words : mother archetype, negative mother, animal symbolism, Sandplay therapy, individuation

* Doctoral Student, Child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Major, Graduate School of Namseoul University/
E-mail: j2htw@hanmail.net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 INTRODUCTION

Jung (1984/2002) viewed the human psyche as containing archetypes rooted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which exist universally across cultures beyond the individual. These archetypes do not present themselves directly in consciousness but appear in the form of images; the archetypal energy is constellated and represented through diverse symbols related to personal experience, culture, religion, ethnicity, and other factors (Jung, 1984/2002). Jung believed that symbols are not created but discovered, and that when an image evokes a powerful emotional response in an individual, the unconscious expresses itself through that image in symbolic form (Jung, 1985/2024). Archetypes become conscious in the form of symbolic images, such as those found in myths, folktales, dreams, Sandplay, literature, and art (Jung, 1959). Jung identified archetypes such as the mother archetype, father archetype, anima/animus archetype, hero archetype, and child archetype (Walker, 2013; Jang, 2024).

Among these archetypes, the mother archetype is a key archetype that exerts the greatest influence on a child's psychological development. Neumann (1973) explained that everyone has a personal mother, and that through experiences of nurturance and care-or of deprivation and control-demonstrated by this personal mother, individuals form either positive or negative images of the mother archetype (Jang, 2024). Protagonists in myths and folktales encounter mother figures appearing as stepmothers, witches, fearsome animals, or monsters-enduring trials and hardships and undergoing psychological transformations of separation, integration, death and rebirth-symbolically show the tasks that the mother archetype imposes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Neumann, 1955/2009; von Franz, 1997; Park, 2017). The suffering and trials brought by the mother archetype carry symbolic meaning in that they demand a change and growth in the ego's attitude (Jung, 1984/2002).

Mother images do not necessarily appear solely in human form. As the image of the mother archetype becomes more distant from the personal mother, it incorporates a greater degree of archetypal content; accordingly, mother images that appear in the form of animals, goddesses, or monsters may reveal deeper layer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an those represented in human form (Jang, 2024). Neumann (1955/2009) observed that many monsters in hero myths combine a woman's face with an animal's body, interpreting them as symbols of maternal ambivalence-encompassing protection and destruction, nurturance and devouring (Jang, 2015). The distorted mother archetype in animal form suggests that maternal ambivalence is fundamentally integrated with instinctual energy at the most primordial level.

Animals are beings that oper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and are characterized by instinctual, sub-human impulsivity. However, animal instinct contains an inherent capacity for self-regulation (Kalf, 2012/2021). Within natural ecosystems, many

animals-such as bears, wolves, tigers, crocodiles, kangaroos, and hamsters-protect and nurture their young until they reach maturity. Once the offspring are deemed capable of independence, the mother instinctively and decisively pushes them away. This behavior should not be understood as neglect or rejection, but rather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positive mother that facilitates autonomy (Neumann, 1955/2009). At the same time, in situations of survival crisis-such as abrupt environmental change or disease-animals may display extreme behaviors, including the abandonment or killing of their young. Thus, the mother as birth, nurturance, and protection is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death and destruction. Within the instinctual order governing animal life, devotion and destruction coexist.

Animals that frequently appear in myths, folktales, and folk beliefs are often portrayed as possessing foreknowledge of impending events (Rhi, 1978/2021). This motif symbolically expresses the idea that the intuitive capacity of the unconscious apprehends reality prior to ego consciousness (Jung, 1961; Rhi, 1978/2021). Jung (1970), in discussing animal symbols, stated that symbolic systems in which beasts appear are signs of psychic processes arising from the instinctual realm, representing unconscious libido and repressed instincts. He also referred to the negative mother image that appears in animal form as the “terrible mother” (de Vries & de Vries, 1974/2024). Libido represented in animal form thus symbolizes a repressed or premature “animalistic impulsivity.” Libido represented in animal form thus symbolizes a repressed or premature “animalistic impulsivity.” When this instinctual energy merges with threatening feminine or maternal imagery, it may be experienced as a symbol of the negative mother, in which fear and fascination are inextricably intertwined (Jung, 1985/2006). Jung (1959) further noted that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a negative mother may symbolically represent their mother as a frightening animal, goblin, demon, or witch, and may manifest neurotic symptoms. When the mother operates in a destructive rather than a creative direction, a negative mother complex is formed, and the child unconsciously remains under the mother’s persistent influence, resulting in psychological conflict (Rhi, 1978/2021; Park, 2012). At this stage, an imbalance emerges between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instincts of avoidance aimed at self-protection, submissive instincts oriented toward adapting to a powerful object in order to preserve the relationship, and aggressive instincts seeking to confront the oppressive object become entangled (Rhi, 1999). When these instincts are not adequately attuned, the child may unconsciously remain bound to the mother’s continuing influence, experience intense guilt and anxiety, and externally develop a tendency toward excessive conformity to rules and authority (Jang, 2024).

Marie-Louis von Franz (1997) emphasized that animals in dreams and folklore often symbolize aspects of the unconscious that the ego represses or struggles to accept, and that these elements must be consciously integrated. Pier Luigi Gillotti (2002) likewise argued that animals in dreams or Sandplay are symbolic messages from the unconscious, functioning as symbols that reflect aspects of the self that the individual needs to recognize and integrate.

Such animal symbolism appears evidently in Sandplay therapy. In children's sandpictures, plants and animals appear repeatedly; although they may seem, on the surface, to be merely background elements filling the tray, in reality they function as key symbols that represent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process of ego differentiation (Jang, 2023). Regarding the most primordial stage of ego development, prior to ego differentiation, Kalff (2012/2021) described this phase as the animal-vegetative stage, while Neumann (1955/2009) referred to it as the phallic - earth stage. The imagery associated with this stage forms the foundational that later supports the growth of ego consciousness (Jang, 2023). Attachment relationships formed around the ages of one and two constitute a foundational framework that shapes relational patterns across the lifespan (Beebe & Lachmann, 1994; Shi et al., 2012). Experiences from this developmental period are encoded not as verbal memories, but as images, emotions, bodily sensations,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Accordingly, the exploration of animal symbolism in Sandplay therapy is closely connected to accessing children's unconscious memories and emotional experiences related to early attachment and relational patter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animals symbolizing the negative mother are represented in myths and folktales across different cultural contexts, and to explore how their symbolic meanings can be observed in children's Sandplay cases.

II. MAIN BODY

1. Animal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in Myths and Folktales

In myths and folktales, animals often appear in the guise of a mother or guardian who seduces and controls the protagonist, and through threat, predation, or pursuit attempts to draw the protagonist back into the primordial womb, thereby functioning as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When a distorted mother archetype merges with animal instinct, the devouring aspect of the mother is revealed in its most dramatic form (Neumann, 1955/2009; Jang, 2015). Through confrontation with such figures, the protagonist undergoes a death crisis; yet, if the ordeal is successfully endured, the protagonist attains a certain distance from maternal influence and moves toward separation and independence (Jung, 1985/2006).

Echidna-born of Gaia, the Mother Earth, and Tartarus, the god of the underworld-(depicted with the upper body of a beautiful woman and the lower body of a serpent patterned with mottled markings) gives birth to destructive offspring as the "mother of monsters" (Kim & Kim, 2025). Appearing as a symbol of the negative maternal complex, Echidna (de Vries & de Vries, 1974/2024) committed incest with her son Orthrus (a two-headed monstrous dog)

and gave birth to the Sphinx. Jung (1985/2006) described the Sphinx as a seductive yet destructive being in a therianthrope form-having the upper body of a beautiful woman and the lower body of a terrifying lion-personifying, on the surface, the 'frightful' or 'devouring' mother.

The Sphinx confronted travelers at the entrance to Thebes with riddles concerning the essence of human existence and devoured those who failed to answer them. The Sphinx seduces individuals through feminine beauty and intellect and dominates them through threat and fear, ultimately leading them to death. It is not merely a monstrous figure but a dark aspect of the mother archetype encountered at the threshold to the individual's inner world. It symbolizes the attributes of the negative mother that, under the guise of love and care, obstruct a child's growth and independence through psychological pressure and control. To overcome and defeat the Sphinx does not signify the elimination or destruction of archetypal energy, but rather the establishment of a balance between the dependent ego within the individual and the controlling force of the mother (Cambell, 1949/2018). Through the process of relinquishing the desire to remain in a state of dependence and resisting the pull toward stagnation, autonomy and subjectivity are established. Only by passing through this test at the threshold of growth does one enter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at leads toward the true Self. This, as Jung (1985/2006) described, constitutes the essenc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and the integration, or union, of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In *The Odyssey*, composed around the sixth century BCE by the ancient Greek epic poet Homer, Sirens are depicted as beings combining a woman's face and voice with the body of an eagle (Kim, 2020). From the later Middle Ages onward, however, artistic representations transformed the Sirens into mermaid-like figures, emphasizing a female upper body joined to a fish's tail. Despite this transformation, they retained their essential nature as hybrid beings in whom human allure and animalistic predation are united.

In the episode of "Odysseus and the Sirens" in *The Odyssey*, the hero Odysseus, on his journey home to Ithaca after the Trojan War, encounters a decisive trial in which he must withstand the Sirens' temptation. The Sirens are said to dwell on islands or along the shoreline, luring sailors with their beautiful songs and causing their ships to wreck, thereby leading them to death. Acting on the advice of the sorceress Circe, whom he encountered on the island of Aeaea, Odysseus orders his crew to block their ears with beeswax, while he himself is bound to the ship's mast so that he will not succumb to the Sirens' call. As a result, Odysseus hears the song without being overtaken by it, escapes death, and is able to continue his voyage (Kim, 2020).

The Sirens reveal a more threatening manifestation of the negative mother archetype precisely because they are portrayed not merely as alluring women, but as beings endowed with

animal attributes. In Homer's epic, the Sirens appear as monsters with the bodies and talons of eagles, reflecting the instinct of birds of prey that seize and kill their young. This aspect symbolizes the destructive attribute of the mother archetype—that is, the negative mother who devours and oppresses rather than protects the child (Neumann, 1955/2009). The bird-like bodies of the Sirens, or their later medieval transformation into mermaids, represent hybrid figures in which human allure and animal predation are merged, presenting the face of a dangerous mother who draws her children into the depths of the unconscious (de Vries & de Vries, 1974/2024). The Sirens' wings and talons, or their fish tails, underscore a natural and instinctual animal power that transcends the human, symbolizing the destructive maternal impulse that seeks not to allow the child to separate as an individual being, but to return it to the primordial womb and swallow it whole. They may also be interpreted as symbolizing the destructive aspect of the anima—the feminine element within the male unconscious—that destroys the ego through the seduction of fatal beauty.

The song itself functions as an illusion that leads to ruin, causing one to evade reality and collapse by forgetting one's essence within unconscious desire. Odysseus's deliberate act of restraint in confronting the Sirens' temptation may thus be understood as a heroic passage through the destructive allure of the unconscious—an effort not to be overwhelmed by the devouring force of the negative mother in an inescapably seductive situation (Jung, 1984/2002).

Jung (1985/2006) argued that for the ego to mature, it must confront and integrate the shadow of the unconscious as well as the anima or the animus. The Siren, as a destructive feminine archetype, stands at the gate leading toward the Self, subjecting the individual to trials of temptation and pleasure and thereby making the union of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into an ordeal. If one succumbs to pleasure and temptation and avoids the trial, the ego regresses, and the possibility of self-realization disappears.

"Little Red Riding Hood," written by the German fairy-tale authors the Brothers Grimm, begins with a scene in which a young girl is sent by her mother to deliver food to her sick grandmother (Brocklehurst & Doherty, 2018). When the wolf encounters the girl walking through the forest, it deceives her with false words and leads her onto a different path, arrives at the grandmother's house first, and devours her. Disguising itself as the grandmother, the wolf then deceives and devours the girl upon her arrival. In this classic fairy tale, a hunter eventually discovers the wolf, cuts open its belly, and rescues both of them (Brocklehurst & Doherty, 2018).

The red hood worn by the girl symbolizes a psychological transitional period marked by the presence of feminine sexuality and self-awareness. A premature ego, still incapable of recognizing the dangers of the unconscious, encounters the wolf—an image symbolizing desires repressed by the ego, sexual instincts, and the shadow.

von Franz (1995) viewed the wolf appearing in folktales as a manifestation of destructive unconscious energy that obstructs the development of the ego. The place in which one encounters the threatening and seductive instincts, represented by the wolf, is the forest. The forest functions as a refuge from the external world and a mysterious space (de Vries & de Vries, 1974/2024), and the ego's entry into the forest signifies leaving behind established order, norms, and protection and entering a realm of chaos and disorder (von Franz, 2017/2020). The grandmother symbolizes the positive aspect of the mother that is warm and protective; however, once she is devoured by the wolf and replaced by the disguised grandmother, she is transformed into the destructive and devouring negative aspect of the mother. In folktales, the wolf is not merely an animal that evokes fear, but a figure that reveals the dark shadow aspect of the mother (von Franz, 1995). According to Jung (1959), the negative mother does not care for or protect the child but instead suppresses the child's growth, renders the child powerless, and absorbs psychological energy. The wolf's attempt to deceive and devour the protagonist reflects the predatory nature of such a destructive mother. In this sense, the wolf symbolizes the devouring mother who seeks to confine the child within herself rather than foster independence, thereby hindering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ego and operating as repression and fear within the unconscious.

The forest is the realm of the psyche, a place governed by unknown dangers (Cooper, 1978/1994), and within it the wolf functions as a concretized image of the negative mother that threatens and tests the ego. The protagonist's actions in defeating the wolf or refusing to be deceived by it can thus be understood as representing the process by which the ego escapes the oppressive influence of the mother and moves toward independence and maturity (Jung, 1984/2002).

Subsequently, the girl in the red hood and the grandmother are revived through the hunter. The hunter may be interpreted as a symbol of the force that intervenes to rescue the premature ego when it becomes entangled in the temptations and shadow of the unconscious. von Franz (1995) stated that in folktales, the negative mother is not just a representation of evil, but a symbol of the unconscious that tests the ego and induces independence. The symbolic meaning of this fairytale may thus be understood as revealing a psychic structure in which the ego matures as a process of becoming conscious through confrontation with the shadow.

The Korean folktale "The Brother and Sister Who Became the Sun and the Moon" begins with the mother leaving the house to go to the market (Yang, 2016). On her way home, she is devoured by a tiger, and the tiger disguises itself as their mother. The brother and sister notice, through the voice and hands, that this is not their real mother and attempt to flee, but the tiger pursues them in order to devour them. The siblings climb a tree and pray to the heavens for salvation, whereupon a rope descends from the sky. Ascending the rope, the

brother and sister become the sun and the moon, respectively, while the tiger, who follows them upward, falls and dies (Yang, 2016).

In this folktale, the tiger pretends to be the mother, serving as a symbol of a destructive negative mother-threatening and devouring the child beneath an outward appearance of familiarity and protection. By impersonating the mother and attempting to devour the children, the tiger represents the negative mother who seeks to confine the children within her own domain and prevent separation. A mother is meant to support the child's movement toward independence and cannot remain a permanent protector. Notably, the siblings flee from the house in which the devouring mother resides, illustrating that, for the child's independence, a "bad mother"-that is, the negative mother-is necessary (Neumann, 1955/2009). For the ego to mature, it must recognize archetypal forces and separate consciousness from the destructive elements of the unconscious in order to achieve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Having escaped the tiger, the siblings ascend to the sky, where the older brother becomes the sun and the younger sister becomes the moon. The sun symbolizes light, masculinity, youth, consciousness, and reason, while the moon symbolizes light within darkness, femininity, and emotion and intuition that illuminate the realm of the unconscious (de Vries & de Vries, 1974/2024).

The myths and folktales discussed here reveal a set of shared themes: animals appearing as mothers, protectors, or seductresses; devouring and threats to life; forces that seek control and dependence; escape, flight, rebellion, and confrontation; ascent and transformation; and the emergence of protective resources and helpers. In this sense, animal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in myths and folktales may be understood not as simple evils that destroy the ego, but as part of psychological testing and transitional processes that the ego must pass in order to achieve growth and separation.

2. Animal Symbols in Children's Sandplay Cases

1) Case 1: The Sandpicture of an 11-Year-Old Child

An 11-year-old girl experienced inconsistent parenting characterized by an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mother and a highly permissive father. At school, she experienced stress in peer relationships and demonstrated a passive attitude toward self-expression, leading her homeroom teacher to refer her for counseling. The mother, marked by high levels of anxiety and a strong emphasis on rules, exhibited a controlling and coercive attitude toward the child, while the father, feeling sympathy for the child's withdrawn demeanor, adopted a markedly permissive stance. Overall, the child presented with an anxious emotional state and expressed ambivalent feelings toward her mother, stating that she likes her, but is also scared of her.



Figure 1. Sandpicture 1

The child described the sandpicture as follows: “There’s a forest and a peaceful village, but a wolf is wandering around here trying to hunt the animals. Then a mysterious power…a rainbow blocked the wolf, and it became a safe village again. The wolf was concealed, and the village became safe again, and so turtles and frogs were born inside the well.”

The sandpicture created by the child may be interpreted as symbolizing her ego that has lost its balance between a safe village and a forest of chaos and the unknown (Cooper, 1978/1994). The peaceful village appears as a positive maternal space that offers protection and nurturance; yet the presence of the wolf threatening it reveals the aspect of the negative mother that retains the potential to devour at any moment. This corresponds to Jung’s (1959) image of the devouring mother, who does not recognize the child as a separate and individuated being but instead seeks to absorb the child into herself, and it actually does reflect the controlling aspects of the mother as experienced by the child. According to Jung (1985/2006), animal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frequently appear as creatures endowed with devouring and predatory instincts—such as snakes, crocodiles, wolves, and spiders—and these symbols represent the negative mother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In the sandpicture, the wolf wanders about, attempting to hunt the animals in the village. Although the wolf is an animal associated with strong maternal instinct, even to the point of sacrificing its life for its young, maternal instinct in folktales sometimes appears in the form of a destructive, devouring mother (von Franz, 1972/2017). This is exemplified in “Little Red Riding Hood,” in which the wolf disguises itself as the grandmother in order to devour the child, illustrating a negative maternal instinct that refuses to allow the child’s independence and instead seeks to confine the child under its control (von Franz, 1995). The image of the wolf threatening the village animals in the sandpicture unconsciously expresses that, within

the child's inner world, the oppressive force of the mother is interfering with the ego's growth and autonomy.

The rainbow appears as an energy endowed with mysterious power that seeks to protect the village by concealing the wolf. However, the fact that the wolf is not eliminated but merely hidden suggests a defensive strategy that covers over and represses the threat rather than resolving it at a fundamental level. This implies that the negative mother remains dormant in the deep unconscious and may re-emerge at any time. Thus, although the sandpicture outwardly appears to depict peace and recovery, it in fact represents a state in which conflict has been repressed and temporarily appeased.

Subsequently, the turtle and the frog inside the well are born within the safety preserved by the rainbow's mysterious power. The turtle symbolizes the beginning of creation, the foundation of all things, fertility, and regeneration (Cooper, 1978/1994), while the frog-a creature that transforms from a fully aquatic animal into an amphibian living partly on land-symbolizes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and transition (von Franz, 1972/2017). In folklores, the frog also appears as a maternal animal associated with childbirth and fertility, functioning as a symbol that pushes unconscious impulses into consciousness (von Franz, 1972/2017). Taken together, these symbols suggest that the turtle and the frog within the well represent a nascent ego within the child, along with the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and autonomy.

However, the fact that they are located "inside the well" is of particular significance. The well symbolizes both the deep unconscious and a confined psychic space. Although the turtle and the frog are born within a protected environment, their confinement within the closed structure of the well indicates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potential for growth into an autonomous ego, the child remai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gative mother and the limitations of the family system. In other words, a new ego is beginning to emerge, but it is not yet ready to enter the world and fully express itself.

In the near-left quadrant of the tray, a wave figure placed together with a snake, with the snake's head oriented toward the turtle and the frog inside the well. The waves symbolize the immense energy of the unconscious and the unpredictable surging of emotions, while the snake is often interpreted as a symbol of instinctual impulses and of the negative mother archetype that obstructs growth and differentiation (von Franz, 1972/2017). The snake is depicted as approaching the new lives within the well, suggesting that the newly emerging ego potential may once again be threatened by the influence of the unconscious mother.

Here, the wolf and the snake symbolize the shadow aspects of the negative mother complex confronting the child. The wolf threatening the village animals and the snake approaching the

turtle and frog in the well illustrate that the potential of the newly born ego may at any time be repressed or destroyed by the devouring mother. In contrast, the turtle and the frog are symbols that contain the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regeneration, and autonomy, revealing a force that seeks to grow within a limited yet meaningful foundation of safety protected by the rainbow. The opposition between the turtle and the frog, representing the potential for growth and regeneration, and the wolf and the snake, representing destructive mother, vividly visualizes the structure of tension and conflict within the child's inner world.

Kast (2007) suggested that when the ego complex fails to sufficiently separate and individuate from the positive mother complex, anxiety-related symptoms may emerge at any time. At the same time,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nxiety serves an important function, acting as a driving force that enables movement from symbiotic relationships to individuation, from dependence to autonomy, from simple compliance to self-responsibility, from unconsciousness to a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and from fusion to a more differentiated and unique sense of self (Kast, 2007). From this perspective, the child tends to repress personal needs and emotions in order to maintain relationships, unable to defy parental expectations and demands due to the fear that she might lose her mother, despite how frightening she is (Winnicott, 1965; Jang 2018). This directly resonates with the child's own statement that she likes her mother, but is also scared of her.

Figure 1 shows that, while the child continues to experience anxiety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gative mother, she is experiencing partial recovery and seeking the possibility of the birth of a new ego. The rainbow secures safety not by completely eliminating the threat, but by temporarily concealing it, while the turtle and the frog remain confined within the well. This suggests that genuine healing and growth can occur only through a process of confronting the negative mother-symbolized by the wolf and the snake-and reorganizing and integrating that energy within consciousness. Viewed through Jung's (1985/2006) theory of individuation, this sandpicture may be understood as symboliz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child's inner journey, in which she faces a destructive mother complex while simultaneously striving to protect the seed of a new ego.

After this session, gradual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child's daily life. At school, her level of anxiety decreased compared to before, and the behavior noted by her homeroom teacher-"being unable to speak in front of peers"-was alleviated. She began to raise her hand more frequently during class, and when friends asked her to do something she did not wish to do, she started to express herself by saying, "I just want to rest today," indicating a gradual development of self-expression and boundary-setting. In situations of peer conflict, she was reported to be less likely to cry or withdraw, instead observing the other person's reaction and verbally stating, "I don't like that."

At home, subtle changes also emerged in her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When the mother attempted to check homework or control daily routines, the child no longer froze or merely complied as she had previously, but instead made efforts to assert autonomy by saying, “I want to try doing it on my own right now,” or “Please wait a little.” Although conflicts initially increased during this process, concurrent parent counseling helped the mother become aware of her own anxiety and need for control, and to practice accepting the child’s choices, which gradually eased their interactions. As a result, the child reported that her mother scolds her less than before and listens to her more when she speaks. The mother likewise noted that the child appears more relaxed than before and laughs more often at home.

In summary, this session may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that enabled the child, not only within the sandpicture but also in everyday life, to tolerate anxiety while maintaining relationships, and simultaneously to make initial attempts to assert her own uniqueness. This can be considered a clinical example illustrating that, as Kast (2007) suggested, anxiety is not merely a pathological symptom but can function as a developmental driving force that facilitates movement from symbiotic relationships toward individuation.

2) Case 2: The Sandpicture of a 13-Year-Old Child

A 13-year-old girl was referred for counseling with the primary complaint of impulsive behavior during school classes and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mother, the child only complied when subjected to strong physical punishment, and the mother did not tolerate any situations or behaviors that deviated from the rules she had established. Whenever such deviations occurred, the child would cry for extended periods and exhibit intense tantrums.



Figure 2. Sandpicture 2

The child described the sandpicture as follows: “This place is a safari, and everyone moves in family groups. It’s mealtime. The tigers are getting ready to hunt, the elephants are drinking water, the giraffes are eating leaves, and the bear is angry because it’s hungry. So, someone brought food because it was hungry and angry. [The someone is] the staff who takes care of the safari. The tiger is trying to eat the other animals, but I don’t think they’ll be eaten.”

The sandpicture created by this child appears, on the surface, to depict the everyday life of animals in a safari; however, it in fact reveals psychological conflict with the mother and the inner tension experienced by the child. The tiger group in the rear left, moving as a family unit, signifies powerful strength and protection, as well as aggression, devouring destructiveness, and oppression (de Vries & de Vries, 1974/2024). The tiger cub within the group may symbolize the child herself, while the preparation for hunting can be interpreted as a maternal attitude that does not permit the child’s autonomy and independence, but instead seeks to confine the child within the mother’s own domain. This structure repeats a pattern of “disguised maternity-predation” similar to the scene in the Korean folktale *The Siblings Who Became the Sun and the Moon*, in which a tiger wearing the mother’s face binds the children within its own domain and ultimately attempts to devour them. Within the child’s unconscious, the mother is experienced as an ambiguous figure who embodies both love and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fear and oppression (Jung, 1984/2002).

In the lower near quadrant of the sand tray—an area tha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mother space (Ammann, 2001/2009)—a bear appears, filled with anger due to hunger and attempting to eat the food brought by a safari staff member. This hunger and anger reflect a lack of positive nurturance and experiences of deprivation, and the bear thus may represent the child’s deprived ego or inner aggressive instinct (von Franz, 1972/2017). The sandpicture displays an attempt to partially compensate for unmet maternal needs through an external substitute object—the safari staff member—suggesting that the child’s ego remains in a premature state in which full independence has not yet been achieved, and internal deficits are addressed through reliance on external support rather than through self-generated resources. Just as, in myths and folktales, the hero passes through the danger of the devouring mother with the help of a teacher or helper (e.g., Circe assisting Odysseus, or the hunter rescuing Little Red Riding Hood), the safari staff member in this scene can likewise be understood as a “rescuer” symbol—one who helps the child survive and meet her needs even amid the threat of negative motherhood.

At the same time, the configuration in which the tiger attempts to devour the other animals, including the bear, yet ultimately fails to do so, symbolically indicates that even under the oppression and control of the negative mother, an inner force is active within the child that resists mere submission and seeks to preserve autonomy.

When examining the child's entire therapeutic process, changes in animal symbolism become more apparent. In early sessions, predatory animals such as tigers and wolves repeatedly appeared alone and threatened or attacked other figures, while humans or helper figures were rarely present. In contrast, in sessions following the creation of Figure 2, the child's sandpictures gradually shifted away from threat and predation toward images of coexistence, regulation, and rest. Through the structure of "crisis-escape-ascent-rebirth," this can be understood as a clinical reenactment of the same narrative logic found in *The Siblings Who Became the Sun and the Moon*-where the children are reborn as the sun and the moon-or in *Little Red Riding Hood*, where overcoming the wolf enables a move into a new relational world. In this sense, the threat of the devouring mother functions as a test that catalyzes the ego's separation, growth, and reconstruction.

These changes suggest that, through Sandplay, the child has begun to move beyond simply repeating and reenacting the relationship with an oppressive mother, and has started to engage more flexibly with the mother image that simultaneously contains aggression and dependency needs. Figure 2 symbolizes the child's inner process of seeking a balance between autonomy and care amid fear and anxiety toward devouring mother, alongside a continuing desire for protection (Kast, 2007). In other words, it serves as a developmental turning point in which the child goes beyond the mere reproduction of conflict, confronts and reorganizes the ambiguous experience of the mother,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new ego.

In the child's everyday life, a particularly notable change was the reduction and regulation of impulsive behavior. At school, behaviors such as abruptly leaving her seat in response to minor stimuli or erupting in anger at a peer's remark gradually decreased. The homeroom teacher reported that, even in situations in which the child felt angry or wronged, she increasingly paused to assess the situation or sought help from the teacher, rather than reacting immediately through her body. When a friend touched her belongings, instances were observed in which she expressed boundaries verbally-such as saying, "I'd rather you didn't do that"-instead of immediately pushing or shouting, as she had previously done. This indicates that the aggression symbolized by the bear and the tiger was no longer erupting directly, and that self-regulatory functions mediated by language and reflective thought were gradually strengthening.

At home as well, behaviors such as throwing objects or crying and throwing tantrums when anger surged decreased, and moments appeared in which the child calmed herself by drawing. Through parent counseling, as the mother began to reflect the child's emotions first and to calmly communicate limits rather than relying on immediate discipline and control, the child likewise began to learn, little by little, to compromise and negotiate rather than respond with outright resistance to her mother's demands. These changes, together with the shift in animal symbolism within the sandpictures from "unconditional predation and threat" to "coexistence

mediated by food and help,” symbolically demonstrate that the child’s impulsivity is not merely being repressed but is being transformed into energy that can be regulated and worked with.

III.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animal symbols representing the negative mother as they appear in myths, folktales, and clinical cases. The symbolism of the negative mother is represented through images arising from the human psyche, frequently appearing as threatening yet mysterious animals combined with human elements; such figures recur across myths, murals, literature, and the arts in all cultures, eras, and regions (Neumann, 1955/2009). Despite cultural differences, these symbols share striking similarities and are deeply connected to the structure of the human unconscious, reflecting universal archetypes with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mankind. von Franz (1997) viewed folktales as symbolic representation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rough which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ego and archetypes are revealed. In particular, negative mother figures appearing as witches, stepmothers, or monsters function as shadows that obstruct ego independence and operate as inner obstacles to individuation. Neumann (1955/2009) likewise emphasized that maternal anxiety and excessive control can exert a detrimental influence on a child’s ego development.

In the cases presented in this study, clients who had experienced negative caregiving environments used animal symbols such as wolves, tigers, snakes, and bears—characterized by predatory and threatening qualities—in their sand trays. These symbols emerged in relation to themes of destruction, fear, the dread of being devoured, and difficulties in self-regulation. In Case 1, the child grew up under inconsistent parental attitudes. Through the sandpicture in which a “mysterious power” conceals the wolf, the child simultaneously expressed fear of the devouring mother and a defensive attempt to block that threat. As therapy progressed, the child began to represent her shadow more directly, experience inner strength, and show changes in peer relationships, including speaking up her thoughts and establishing boundaries. In Case 2, the child immersed herself in Sandplay within a free and protective space provided by the therapist, through which she experienced self-healing and self-comfort (Kalff, 1980). In the early sessions, predatory animals appeared in isolation and threatened other figures; however, from the middle phase of therapy onward, symbols of care and regulation—such as safari staff, animals sharing food, and caring for young animals—gradually emerged. This shift is significant in that predatory animal images did not disappear entirely, but were reconfigured from purely threatening figures into presences that could be regulated and related to. Notably, alongside the child’s changes, the parents also began to chang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therapeutic companionship. The mother, who had previously

regarded severe physical punishment as natural, came to recognize that her behavior had been a source of the child's suffering.

When looking 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ver the entire course of therapy, animal symbolism is shown not as a fixed image confined to a single session, but as a dynamic process—from devouring mother, to distancing and blocking, to the emergence of protective resources, and finally toward coexistence and regeneration. This trajectory corresponds to the symbolic structure of “devouring mother-separation-rebirth” found in myths and folktales. Just as protagonists in folktales escape from or confront frightening mother-animals and subsequently attain a new position—becoming the sun and the moon, arriving at a new village, or forming new relationships—the confrontation with predatory animals in children's Sandplay likewise led to processes of ego separation, reorganization, and movement toward a new self-imag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children encounter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mother archetype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real mothers (Jang, 2024). When children with disrupted attachment relationships experience Sandplay therapy, negative mother tends to emerge in the early phase of treatment, while positive mother appears more prominently in later phases, during which processes of death, rebirth, and integration take place (Park, 2017). In the cases dealt in this paper, children repeatedly represented animals as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and gradually introduced images of protective resources, helping figures, and the birth of new life. This suggests that negative maternal experiences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bad parenting,” but rather as psychological tensions that inevitably arise as the child moves toward separation and autonomy (Neumann, 1955/2009).

The less a mother reflects upon her own anxiety and controlling tendencies, the more likely the child is to repeatedly create sandpictures of being chased or devoured by predatory animals (von Franz, 1997). Conversely, when parents begin to reflect on their caregiving attitudes during the therapeutic process and shift toward supporting the child's autonomy, images of coexistence, care, and regeneration increase in the child's sandpictures (Jung, 1959). In this sense, the crucial point in the recover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lies not in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negative mother symbols, but in the transformation of their energy into forces of protection, boundary-setting, and regulation.

These observations in Sandplay therapy offer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animals are not merely representations of fear, but constitute key symbolic material through which children reveal how they relate to unconscious maternal images. Second, rather than attempting to eliminate predatory animals because they are “bad,” it is essential to help the child safely confront these symbols and assign meaning to them. For example, through play

such as giving the wolf a name, feeding it, or keeping distance from it, the child can come to experience destructive maternal symbols as objects that can be engaged with and regulated. Third, change within Sandplay therapy was found to be closely linked not only to the child but also to changes in the parents. As seen in the cases presented, when therapists shared with parents the fears and deprivations symbolically expressed by the child in the sand tray, and when parents began to reflect on their own controlling or avoidant caregiving pattern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hifted in a more reciprocal direction. The case in which the parent who had previously regarded severe physical punishment as natural came to recognize the child's suffering through Sandplay and parent counseling, and subsequently attempted apology, empathy, and attentive listening, is a clear illustration. This suggests that Sandplay therapy is not just an individual treatment for the child, but a form of family intervention that enables parents to reinhabit aspects of the positive mother archetype.

Finally, symbolic play in which the child confronts and overcomes terrifying maternal figures (Neumann, 1973) may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overcoming the negative mother complex and as part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which is for the development and maturation of the child's ego (Jung, 1959). The transformation of a terrifying mother into a good mother requires a rite of passage involving symbolic death and rebirth (Sibylle, 2003/2012), and Sandplay therapy provides a safe space in which such inner rituals can take place (Kalff, 1966; Mitchell & Friedman, 1994).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negative maternal symbols in myths and folktales and animal symbols appearing in sandpictures share the same structural pattern of "devouring mother-separation-rebirth." Clinically, this suggests that children's symbolic play is not merely an act of representation, but a process through which they establish psychological boundaries and reconstruc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new ways through an unconscious dialogue with maternal images. Therapists are therefore called to respect animal symbols in the sand tray not as objects to be avoided, but as crucial clues for interpretation and integration, and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parents to support the child's formation of a healthy ego and the integration of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This is one concrete manifestation, in clinical practic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described by Jung (1985/2006).

References

- Ammann, R. (2009). *Jungian sandplay therapy* (U-K. Lee, Trans.). Institute of Analytical Psychology.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Brocklehurst, R. & Doherty, G. (2018). *The Usborne Classic Grimms Fairy Tales in One Volume* (H-J, Yang, Trans). Usbornkorea.

- Campbell, J. (2018).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Y-K. Lee, Trans.).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49)
- Cooper, J. C. (1994).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Y-K. Lee, Trans.). Kachi publisher
- de Vries, A. & de Vries, A. (2024).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M-K. Jang, M-R. Kwon, S-M. Kim, & H-S. Jung,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Gillotti, S. (2002). The turtle: Symbol of ancient wisdom and new life.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1(1), 51-61.
- Jang, M-K. (2018). *Play-Therapy*. Changjisa.
- Jang, M. K. (2023). *Plant & Animal Symbolism in Sandplay Therapy*.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on-line semina.
- Jang, M-K. (2024). *Analytical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2nd ed.). Hakjisa.
- Jang, Y-R. (2015). The archetypal 'feminine' and the symbols and images of the great mother. *Semiotic inquiry*, 44, 227-254.
- Jung, C. G. (1959).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9.
- Jung, C. G. (1961). *Zu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m Märchen*, in *Symbolik des Geistes*, Rascher,
- Jung, C. G. (1970). *Mysterium Coniunctionis*. Vol. 14, 2n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2002). *Archetyp and unbewusstes*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Sol.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Jung, C. G. (2006). *Hero and Mother Archetypes*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Sol.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 Jung, C. G. (2024). *The concept of salvation in alchemy*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Sol.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 Kalff, D. (1966). *Symbolism and child analysis*. Unpublished transcription of seminar at Footlighters' Child Guidance Clinic. Hollywood Presbyterian Hospital.
- Kalff, D. (1980).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Temenos Press.
- Kalff, D. (2021). *Kalff Dora's Sandplay, a Jungian Healing Method* (B-S. Lee,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Kast, V. (1994). *Vater - Töchter - Mutter-Söhne: Wege zur eigenen Identität aus Vater- und Mutterkomplexen*. Kreuz Verlag GmbH & Co.
- Kim, Y-S. (2020). Kafka's narrative strategy and his modification of the siren myth: seductive sirens?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89, 165-195.
- Mitchell, R. R. & Friedman, H. S. (1994). *Sandplay: Past, present and future*. Routledge.
-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Publication.
- Neumann, E. (2009). *The great mother* (S-H. Park, Trans.). sallim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55)
- Park, H-J. (2012). *Chaos, death and rebirth in the process of sandplay therapy for child*.

-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 Park, J-H. (2017). A Study on the Mother Symbols in Folktales and Mythologies in Korean and Greek Folktales & Mythologies. *Humanities Research*, 52, 137-163.
- Rhi, B-Y. (1999). Psychodynamic Understanding of the 'Psychoneurosis' - Comparative Review of Different Schools - / The Concept of 'Neurosis' by V. E. Frankl - in Comparison with Jung's Concept -. *Korean Association for Analytical Psychology*, 14(2), 55-73.
- Rhi, B-Y. (2021). *Analytical Psychology, Third Edition - C. G. Jung's Theory of the Human Mind*. Illjogak.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Shi, Z., Bureau, J. F., & Easterbrooks, M. A., & Zhao, X., & Lyons-Ruth. (2012). Childhood maltreatment and prospectively observed quality of early care as predictor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3(1), 55-69.
- Sibylle Birkhäuser-Oeri (2012). *The image of motherhood in folk tales* (U-K. Lee, Trans.). Institute of Analytical Psychology.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von Franz, M. L. (1995).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Shambhala Publications.
- von Franz, M. L. (1997). *Archetypal Pattern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 von Franz, M. L. (2017). *Puer aeternus* (S-K. Hong, Trans.). Jung Institute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von Franz, M. L. (2020). *Femininity in Folktales* (Y-S. Park, Trans.). Jung Institute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Walker, S. (2013). *Jung and the Jungian myth*. Routledge.
- Winnicott, D.W. (1965). *The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Hogarth Press.
- Yang, H-W. (2016). *The siblings who became the sun and moon*. Yellow Pig.

Submitted : October 15, 2025
Revised : December 15, 2025
Accepted : December 18, 2025